

하루를 시작하며



고 춘 옥  
시인

언제부턴가 선거가 삼류 막장 드라마 이상이라 사람들의 심심잡은 가십거리로 전락했다. 이번 선거에도 여지없이 후보들의 개인사가 도마 위에 올라갔고, 우리는 연기를 제일 잘하는 배우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렇게 리더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를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국민들 스스로 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성을 던져주고 있어 민주사회의 좋은 공부거리가 되기도 한다.

미치는 선거 판을 보다가

삼류 막장 드라마의 시청자가 일류 드라마 주인공의 사유를 읽어 낼 수 없듯이 우리에게도 일류 시민의 태도, 그 ‘국민의식’이란 게 없었다. 그래서 같이 즐겼다. 그냥 ‘표 하나’에 불과했다. 우리를 ‘표 하나’로 보고 있는 사람에게 복수하듯 우리 역시 이번 대선 후보들을 리더의 감량이 아닌 ‘표 물이꾼’으로밖에 보지 않는 것. 그뿐이다. 양쪽 다 국민 정체성이 문제였다. 누군가 “네가 바라는 대선 후보에 대한 기준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대뜸 최소치는 ‘바보 이반’ 최대치는 링컨 ‘이라고 말하겠다. 그동안 삼류 막장 드라마에 취해 있다가 톨스토이와 스티븐 스피버그가 각색한 일류 빼고는 다 까먹어버렸으니 말이다. 이 참에 민주 국민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을 제대로 공부해야 할 것 같다. 온전히 나만의 시각이 필요할 때

라 셀프 인터뷰해 본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의 앞날에 대안이 없다는 건가?” 물론 있다. 탈 이념, 탈 종교, 탈 특권, 탈 반칙하는 선거다. 요즘 젊은 층들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고 확대해 주면서 나가면 된다. 나는 언제까지 현실에 직면한 문제들의 합리적 대안을 돌출하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토론의 장에서, 순전히 입연기 오디션만 보다 지쳐 버려야 되는 거냐?, 제발 여야가 함께 연합하고 공동 구상하면 좀 안 되겠냐? 한국 정치는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지 않겠나? 응? 혼자서 떠들어 대다가 그만 실소를 터뜨렸다. 너나없이 미치는 선거 판이 된 듯해서다. 지금 대전환의 시대다. 누군가는 인류 역사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테크놀로지를 abcd로 간단하게 설명했다. AI, Bioigy, clean, digital 과학기

술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문제를 넘어서 인류가 기계와 함께 운영적으로 같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기대했던 깊은 논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것들이다.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 공약과 국민을 삼류로 만드는 후보들의 ‘그녀 문제’가 대다수 온라인 장을 도배하고 다닌다. 여기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말하는 확증편향 논의들까지 가세하다 보니 세상이 온통 이수라장 같은 느낌이다. 지금 선거의 핵심은 오로지 ‘우리에게 코로노믹스 시대에 불어닥친 4차 산업 물결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만한 두뇌와 인품이 있는가’다. 이번 선거에도 ‘보다 덜 나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국민들이 참으로 막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설

벼랑 끝에 내몰린 1차산업 공약이 없다니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남았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탈모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거나 등 병의별 공약이 봇물을 이룬다. 특정계층을 겨냥한 달콤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1차산업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 청년(만 19~20세)과 문화예술인에게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60~65세 노인에게 연 120만원 장년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주택 250만호 공급, 부모의 육아

재택 근무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 제공, 봉급생활자 기본소득 공제액을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작 벼랑 끝에 내몰린 1차산업에 대한 공약은 없다. 오늘날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단적으로 최근 10년새 쪼그라든 농촌인구만 봐도 알 수 있다. 제주도내 농촌인구는 2010년 11만 4539명에서 2020년에는 8만 141명으로 30.3% 줄었다. 농가(경영주) 연령은 이보다 더 심하다. 60대 이상 비중이 2010년 48.5%에서 10년만에 58.0%로 늘었다. 이처럼 농촌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농업에 대한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주는 1차산업의 비중(10%)이 상당히 높은데도 여태 공약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지하수 아닌 물 공급망 개선 ‘만시지탄’

제주 물 수급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지 오래다. 지하수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오염도 심화와 고갈, 사용량 증가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다. 물수급 대책으로 지하수 공급량을 늘리느냐, 아니면 사용량을 줄이느냐 하는 양상향에서 지하수 추가 개발은 물 부족을 부추기고, 물 사용량 줄이기도 한계를 지닌 낡았다. 최근 환경부의 ‘제1차 영산강·섬진강·제주권 물관리종합계획(2021~2030년)’ 제주 공청회에서 나온 물 계획은 지하수 추가 개발을 막는 대신 기존 물급수체계 개선을 통한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향후 제주권 기후변화로 연평균 강수량 감소를 의식해서다. 강수량 감소가 대체인 상황에서 지하수 추가 개발로 물 고갈을 부추기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없다. 대

신 물 급수체계를 개선해 적정 공급량 유지와 지하수 수위도 유지하자는 전략이다. 농업용수·상수도의 심각한 누수율은 급수체계 개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농업용 지하수관정 누수율은 2019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62%, 제주연구원 조사 60% 이상일만큼 심각하다. 상수도 누수율도 43%다. 수돗물 공급량 절반 가량이 땅속으로 줄줄 새는 경악할 현실이다. 제주가 정수장에서 각 가정에 도달하는 물 비율인 유수율 47%(전국평균 85%)를 대폭 높일 급수체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지하수 개발 금지도 강수량 감소에 당연하다. 한 마디로 신규 수자원 개발은 막고, 누수를 방지해 물 공급량을 늘리는 전략은 지금도 늦었다할 만큼 절실하다.

열린마당

세계 최초 온실·과학영농기술의 보급



이 봉 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금처럼 과거에도 농사의 편이를 위한 발명은 꾸준히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벼의 가뭄으로 인한 흉작이 큰 걱정이었던지 세종때 선조는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연중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측우기를 발명했다. 이 단순한 쇠를 부어 만든 그릇은 강우량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고, 모내기에 적당한 날짜를 정하는데 큰 과학적 도움이 됐다. 기상재해에 대해 과학적으로 대응해서 기상현상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15세기 조선의 측우기라면, 동시대에 발명된 ‘동절양채(冬節養菜: 겨울철 채소 재배)’를 위한

온실’은 계절을 극복하고자 한 새로운 농업기술의 출현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난방방식인 온돌로 난방을 하고, 기름 먹인 한지로 만든 채광창을 통해 온습도를 조절했던 과학적 구조를 가진 조선의 온실은 첨단 과학영농시설이었다. 현재 과학영농기술의 보급은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각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된 기술과 농업 현장 실증을 통한 기술확산이 필요한 65개 사업에 대해 1월 28일까지 신청 접수하고 있다. 과거 선인들이 개발한 영농기술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연유는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농사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농업기술보급 및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4·3평화국제공항’ 토론 감감

박찬식 제주자치 대표 기자회견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식 제주자치 공동대표가 지난 17일 제주 제2공항 대안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함께 공개토론을 요청했으나 타 후보 등이 침묵으로 일관. 박 공동대표는 이날 제주자치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가 되면 제2공항에 대한 논란을 접고 대안으로 개조한 ‘제주4·3평화국제공항’을 추진하겠다”면서 제안. 박 캠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당이나 도지사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연락이 온 곳은 없다”며 “‘제주4·3평화국제공항’으로 제안한 것은 제주를 오가는 관광객들이 4·3정신을 되새기고 이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고대로그자

범농협 차원 양파 소비촉진  
○…3월 제주산 햏양파 출하를 앞두고 양파 주산지 지역농협별로 저장양파 처리난을 겪자 농협제주지역본부가 이달 10~24일 범제주농협 차원에서 임직원 양파소비촉진 운동을 벌여 15t을 판매. 코로나19로 인한 양파 소비부진으로 이달 중순 이후 도매가격이 상품 1kg에 500원까지 폭락해 저장양파 보유 농협마다 처리난을 겪었고, 햏양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며 전전긍긍해온 상황. 제주농협 관계자는 “제주는 전국에서 햏양파가 가장 먼저 출하되는 곳”이라며 “지금처럼 저장양파 처리난이 지속될 경우 햏양파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급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범농협 차원에서 처리에 힘을 보탬”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부 고

양은석(길상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버지 제주양공 시욱(前 중등교장·향년 89세)께서 서기 2022년 1월 24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1월 28일(금요일)  
▶발인일시: 2022년 1월 29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어음리 선영

아 들 양은석 며느리 지연희  
은호 박정민  
은전 강진희  
은수 오지희  
딸 양순희 사 위 소원옥  
은애

※ 연락처 : 양은석 010-9741-8097  
소원옥 010-5691-0285

부 고

제주 성내교회 고성숙 원로권사  
(제주YWCA 8대회장, 향년 95세)  
께서 서기 2022년 1월 25일 08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발인일시 및 장례예배:  
2022년 1월 28일(금요일)오전 10시  
▶발인장소: 제주 성내교회  
▶장 지: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아 들 김 의 석 며느리 이 은 주  
원 석 최 승 주  
딸 김 정 심 사 위 신 광 범  
영 심  
정 현 나 춘 식

※ 연락처 : 김원석 010-4205-3969  
이정훈 010-2006-0675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 성 명 : 망 유인숙(1955. 11. 5.생)  
• 최후주소 : 제주시 월령로4길 15, 시동 3호(노형동)  
상기자는 2021년 11월 29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2년 1월 19일 제주지방법원 2021년단60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 처 : 제주시 연사길 90, 비동 102호 (오라이동, 연미전진빌라)  
2022년 1월 26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강 승 훈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I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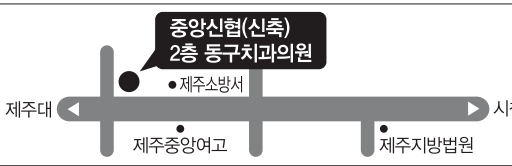
732-5552

의 료 안 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 구 치 과 의 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